

경북도서관 5월 북큐레이션

-가족과 책나들이 가봄, 북크닉-

어린이 도서

서명	청구기호
가족의 탄생	유 813.808 웅진웅 v.29
근사한 우리 가족	유 863 모로,근
밋스 가족의 특별한 비밀	아 808.9 생각하주 v.6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유 808.9 날개달여 v.20
아빠 셋 꽃다발 셋	유 813.808 그림책책 v.45
우리 가족 납치 사건	유 813.808 그림책책 v.30
우리 가족에겐 비밀이 있어요	아 813.8 박민호우
우리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유 813.8 최재숙우
우리 엄마	유 808.9 웅진세웅 v.16
토라지는 가족	유 813.8 이현민토

일반 도서

서명	청구기호
가족습관	192 이호선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814.7 윤용인그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598.104 김나윤내
아버지와 아들의 아프리카 산책	983.02 유재권아
아버지의 비밀 정원	814.7 현정원아
아빠가 되었습시다만,	838 요시타아
오늘도 아이와 싸웠습시다	598.1 이지은오
정혜영의 식탁	594.5 정혜영정
중1 독서습관	029.8 유형선중
할머니의 요리책	594.5 최윤건할



가족의 탄생

■ 저	자	허 은 미		
■ 출	판	사	웅진주니어	
■ 발	행	년	2017	
■ 청	구	기	호	유 813.808 웅진우웅 v.29

책 소개

“할아버지, 안녕!”

주인공의 집에는 올해도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주인공과 가족들은 나팔꽃을 보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는데요,

할아버지와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죽음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근사한 우리 가족

▪ 저 자	로랑 모로
▪ 출 판 사	로그프레스
▪ 발 행 년	2014
▪ 청 구 기 호	유 863 모로,근

책 소개

“우리 가족은 정말 근사해요!”

여기, 한 소녀가 우리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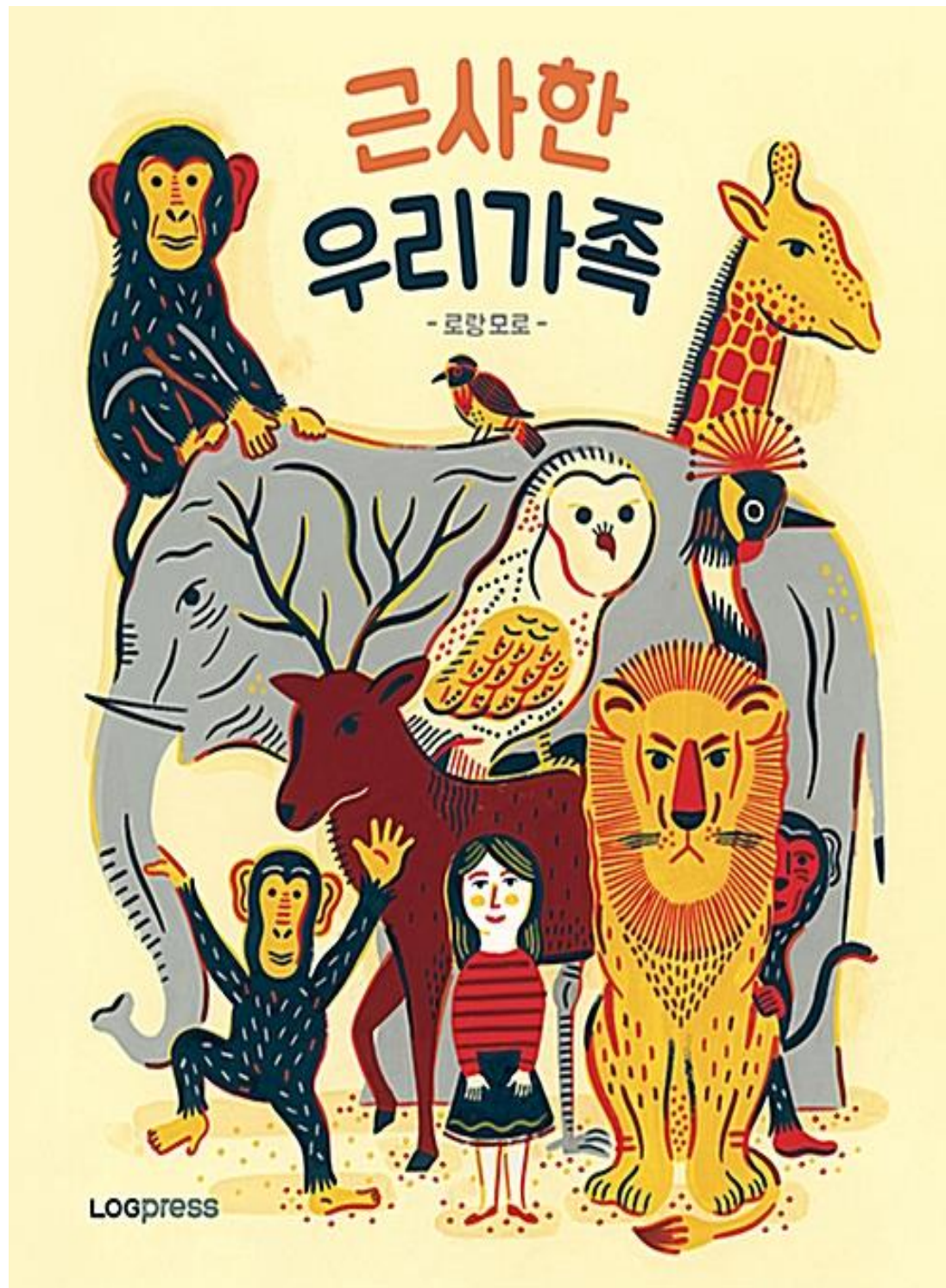
힘이 정말 센 오빠와 키가 크지만 수줍음이 많은 엄마,

그리고 털이 수북한 아빠와 다정다감한 할머니까지!

가족의 모습을 각각의 특징에 맞는 동물에 비유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표지 속 주인공인 소녀를 중심으로 각각의 동물들이 과연

누구를 표현한 것일까요? 직접 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밍스 가족의 특별한 비밀

■ 저 자	인그리드 로
■ 출 판 사	주니어랜덤
■ 발 행 년	2010
■ 청 구 기 호	아 808.9 생각하주 v.6

책 소개

“아빠, 내 말 들려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밍스네 가족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생일을 맞게 되면 특별한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큰오빠와 둘째 오빠 모두 그랬듯, 주인공인 밍스도 자신이 갖게 될 초능력이 몹시 기대됩니다.

그렇게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밍스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밍스는 자신의 초능력으로 아빠가甦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는데요, 과연 밍스는 어떤 초능력을 갖게 될까요?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 저 자	허 은 미
▪ 출 판 사	여유당
▪ 발 행 년	2018
▪ 청 구 기 호	유 808.9 날개달여 v.20

책 소개

“나는 오랫동안 엄마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주인공은 **엄마**가 좋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엄마는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침마다 무섭게 야단을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별명은 불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 댁에 간 주인공은 지금의 엄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엄마를 향한 주인공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빠 셋 꽃다발 셋

■ 저 자	국 지 승
■ 출 판 사	책읽는곰
■ 발 행 년	2017
■ 청 구 기 호	유 813.808 그림책책 v.45

책 소개

“꽃다발을 산 아빠들,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요?”

여기,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세 명의 아빠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김기사님, 소아과 김원장님, 직장인 김과장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꽃다발을 사는 아빠들, 과연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요?

아빠가 매일 출근하여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아빠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가족 납치 사건

■ 저 자	김 고 은
■ 출 판 사	책읽는곰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유 813.808 그림책책 v.30

책 소개

“아무도 없는 바닷가인데 아무렴 어때요.”

주인공의 가족이 납치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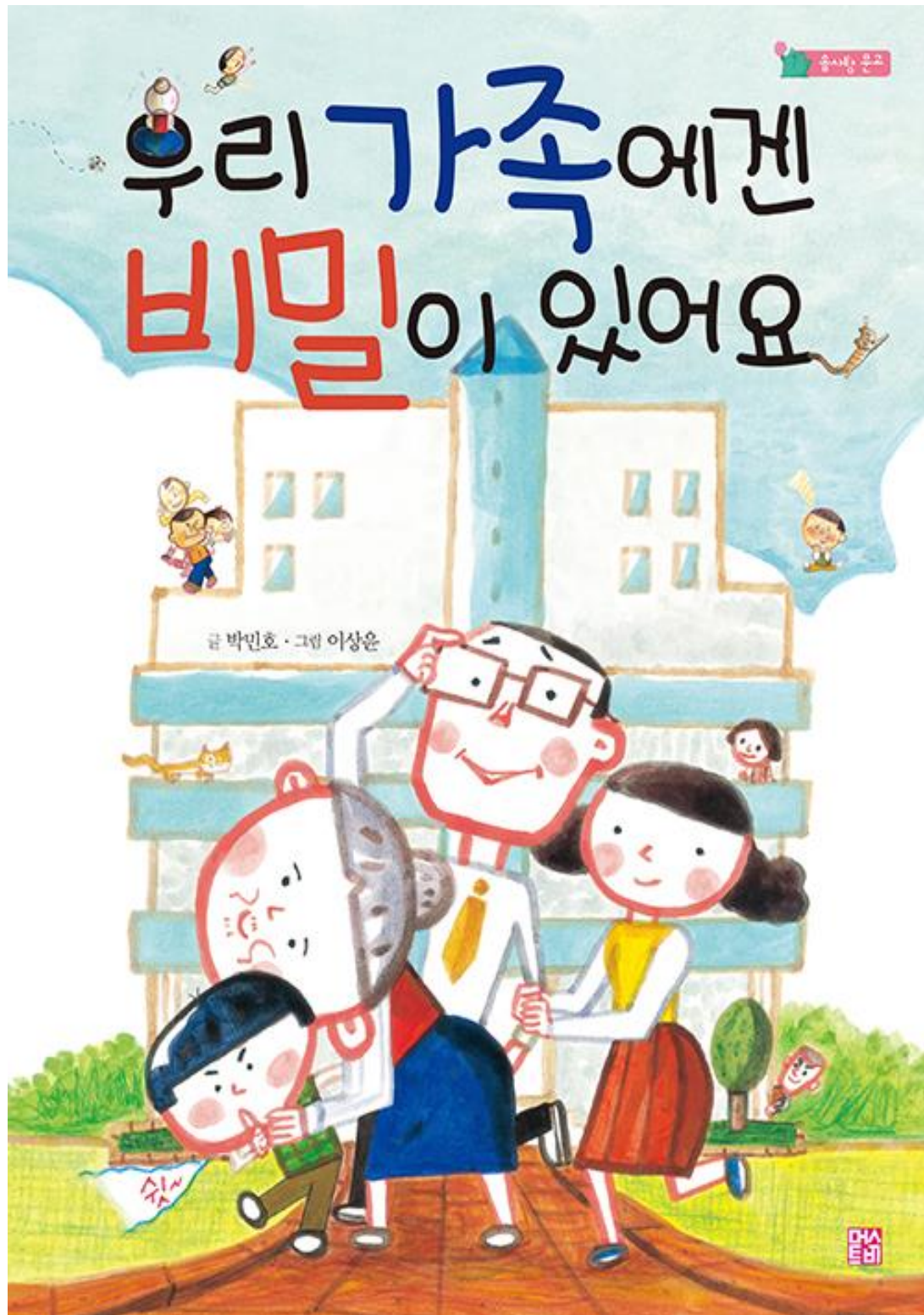
아빠의 가방이, 엄마의 치마가, 그리고 주인공의 머리끈이
주인공의 가족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데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가족은 아무 생각 없이 놀기로 했어요.

그래도 별일 없었으니까요!

바쁜 일상에 치여 일탈을 꿈꾼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른 건 다 훌훌 잊어버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



우리 가족에겐 비밀이 있어요

■ 저 자	박 민 호
■ 출 판 사	머스트비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아 813.8 박민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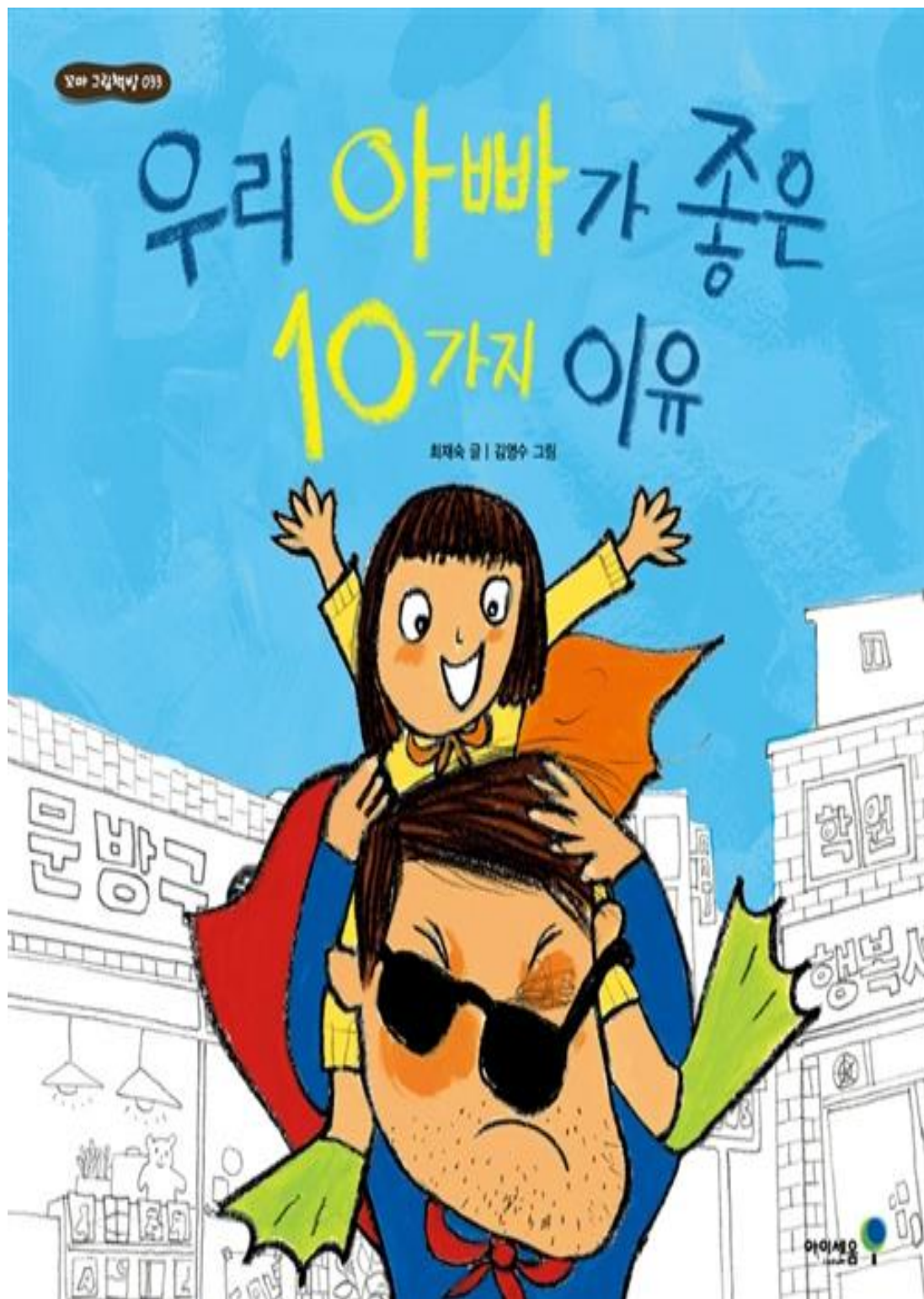
책 소개

“우리 할머니가 이상해요.”

주인공 용우네 가족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겐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용우네 가족은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기로 합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도망가지 않도록 말이죠.

괜스레 **할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5월, 이 책을 통해 잠시 잊고 있던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



우리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 저	자	최 재 숙		
■ 출	판	사	아이세움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13.8 최재숙우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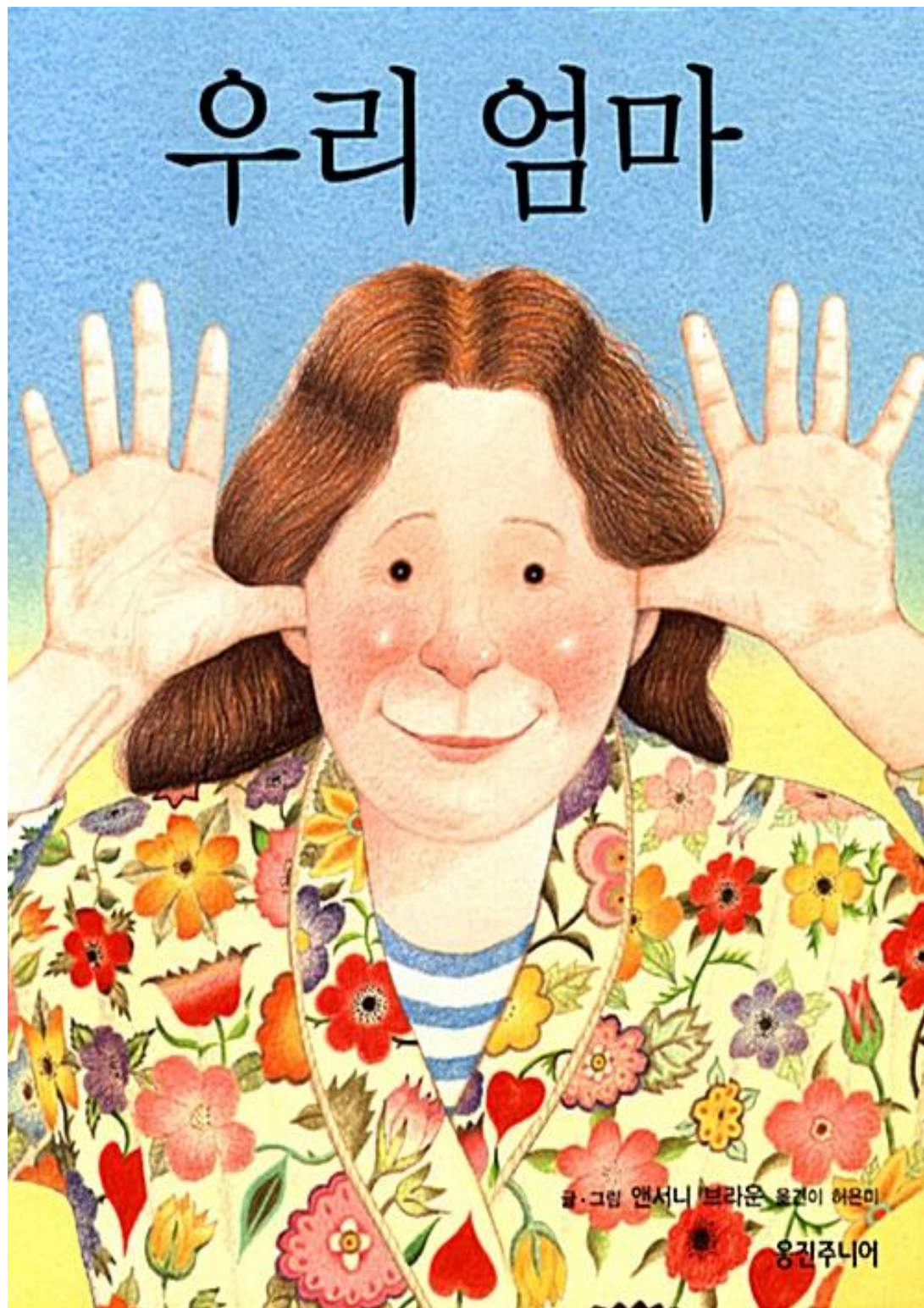
“난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무조건 좋아.”

아빠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책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아빠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도 아빠가 좋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아빠라서 무조건 좋은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아빠와 주인공의 티격태격하지만 진솔한 사랑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엄마

■ 저	자	앤서니 브라운		
■ 출	판	사	웅진주니어	
■ 발	행	년	2018	
■ 청	구	기	호	유 808.9 웅진세웅 v.16

책 소개

“우리 엄마는 슈퍼 엄마!”

주인공은 **엄마**가 정말 정말 좋아요.

엄마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재주꾼에, 힘도 세고, 못하는 게 없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려요.

이 책은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엄마의 모습을 화사한 그림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



토라지는 가족

■ 저 자	이 현 민
■ 출 판 사	고래뱃속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유 813.8 이현민토

책 소개

“모두들 토라져요. 모두요.”

가족끼리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일요일 아침, 책 속 가족들이 하나 둘 토라져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다시 하나 둘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죠.

이 책을 통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끔은 낯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가족습관

▪ 저 자	이 호 선
▪ 출 판 사	북코리아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192 이호선가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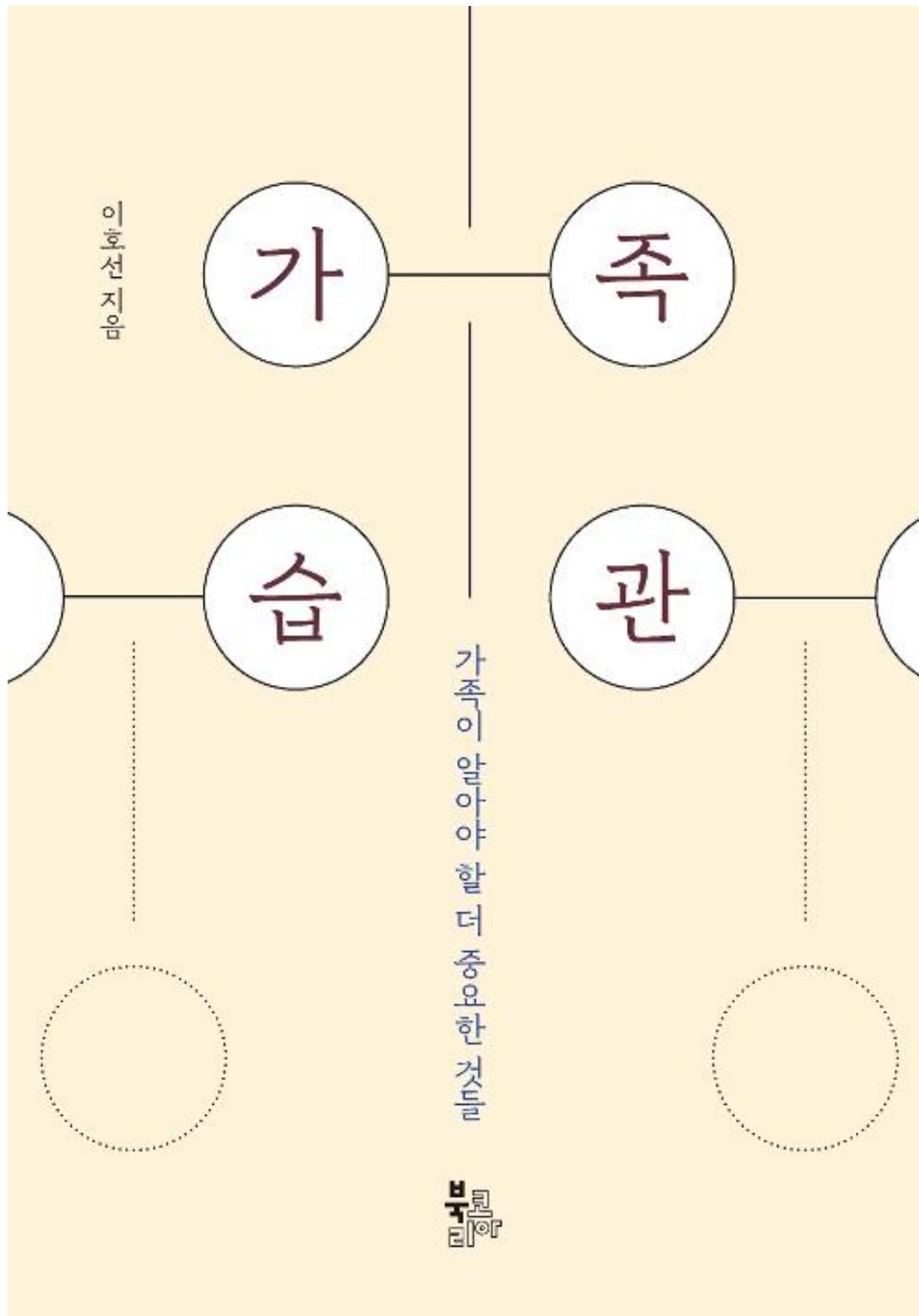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미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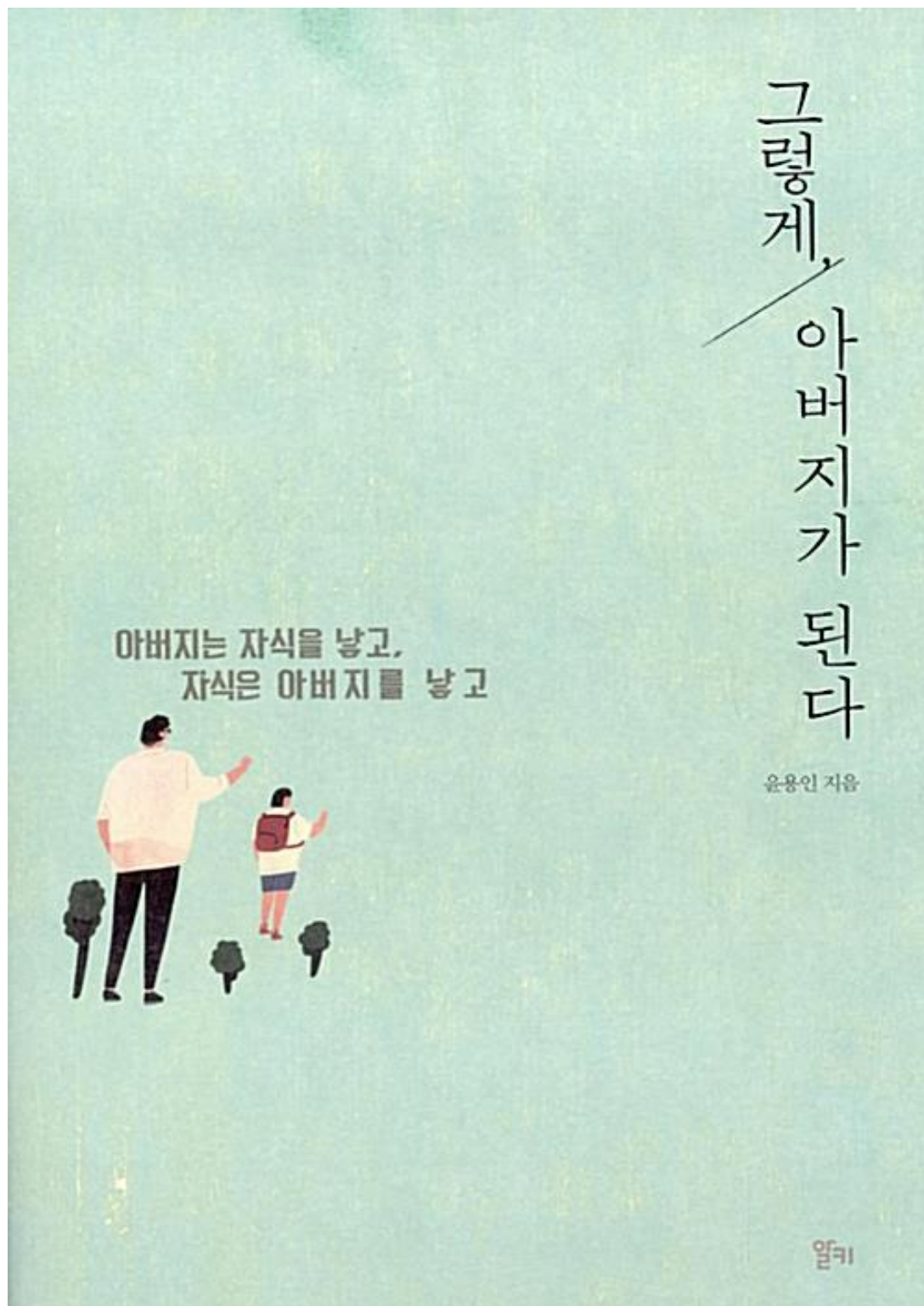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특히 제각기 다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저자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과 주제만 보고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공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경북도서관 2020 북가락 문화아카데미에도 참여하여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 또한 가족 간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저 자	윤 용 인
▪ 출 판 사	알키
▪ 발 행 년	2016
▪ 청 구 기 호	814.7 윤용인그

책 소개

“그리고 당신, 참 많이 애쓰고 있어요.”

이 책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저자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써 내려간 글입니다.

저자는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가 싫었기에,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만이었을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갈등이 믿기지 않고, 다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죠.

혹시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 저 자	김 나 윤
■ 출 판 사	김영사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598.104 김나윤내

책 소개

“어른이 되면 누구나 잊어버린다. 자신도 어린애였다는 사실을.”

어린이 동화작가인 전이수 작가의 엄마인 저자가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다양한 일화들과 생각들을 정리하여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첫째 아이는 TV 프로그램도 출연했을 정도로 유명한 동화작가인데요,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기에 저런 동화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이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더불어 전이수 작가의 동화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촬영 내내 가슴을 울렸던 ‘어린 왕자’
전이수 작가 가족 이야기.

내가 본 이수 엄마는 네 개의 큰 별을 사람으로
품고 가꾸는 우주다!”

—SBS <영재발굴단> 문치영 PD

김영사





아버지와 아들의 아프리카 산책

▪ 저 자	유 재 권
▪ 출 판 사	글도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983.02 유재권아

책 소개

“와! 이게 아프리카지. 그래. 이게 아프리카지.”

이 책은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9일 동안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발, 그리고 생생한 아프리카를 느끼는 순간까지 마치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었던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이 책을 읽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간접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나마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



아버지의 비밀 정원

■ 저 자	현 정 원
■ 출 판 사	연암서가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814.7 현정원아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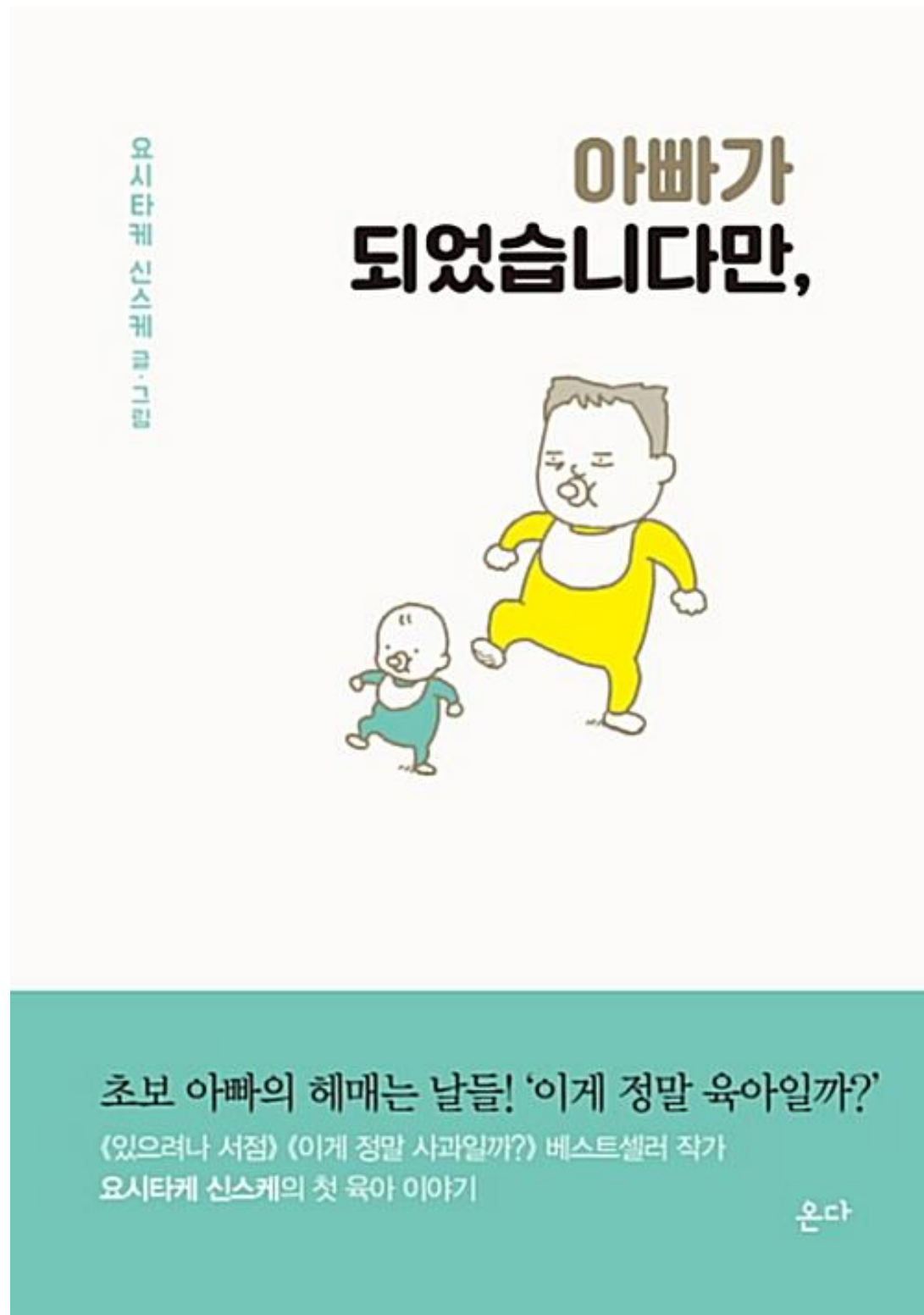
“기억이 사라진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는 걸까.”

이 책은 저자의 두 번째 수필집으로, 저자의 여러 짧은 글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부 첫 번째의 글을 책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저자는 그 이유를 더 이상 아버지의 현재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던 저자의 아버지는 점점 잠이 많아지시고, 그런 아버지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저자는 아버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저자의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5월, 잔잔하지만 읽다 보면 빠져드는 수필의 묘미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빠가 되었습니다만,

■ 저 자	요시타케 신스케
■ 출 판 사	온다
■ 발 행 년	2018
■ 청 구 기 호	838 요시타아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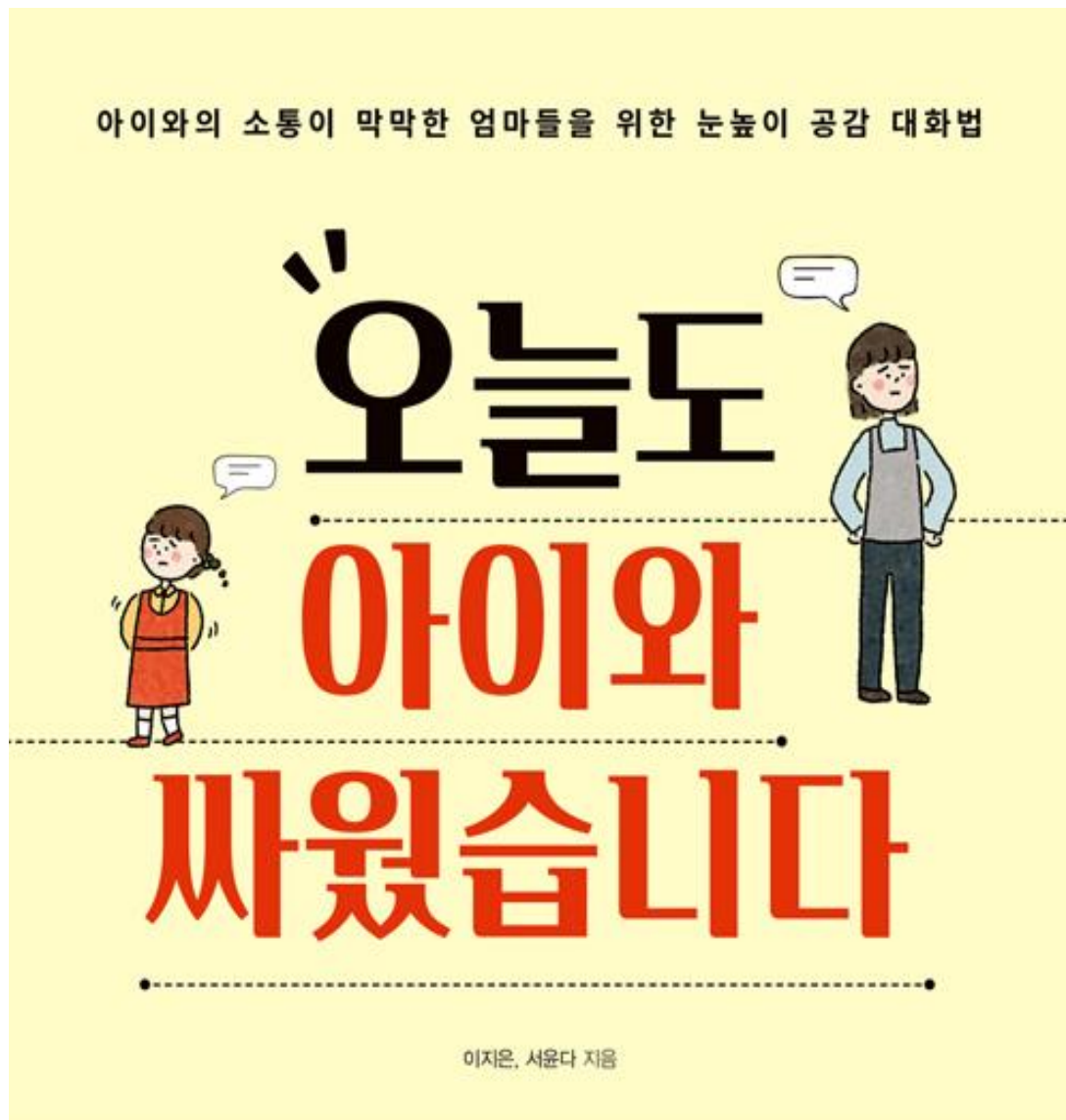
“아빠의 ‘조금만’ 과 엄마의 ‘조금만’ 은 조금 다르다.”

이 책은 저자가 아빠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초보아빠로서 겪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에세이입니다.

초보 엄마의 시선이 아닌 초보 아빠의 시선에서 그린 이 그림 에세이는 저자의 솔직한 심경들이 담겨 있어 피식 웃음 짓게 합니다. 곧 초보 아빠가 될 분들이나 현재 초보 아빠이신 분들은 아마 크게 공감이 될 겁니다. ☺

줄글이 아닌 그림 에세이인 만큼 짧은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책을 읽어볼까 하는 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저자가 쓴 어린이 동화책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 작가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의 저자와 유대관계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



“아이의 자존감, 엄마의 소통 방법에 달렸다!”
스피치 교육 현장에서 10년간 만 명에 가까운
아이와 부모를 만나며 터득한 전문가의 핵심 노하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화 및
행동 솔루션

오늘도 아이와 싸웠습니다

■ 저	자	이 지 은
■ 출 판 사		시대인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598.1 이지은오

책 소개

“늘, 항상 좋은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아이와 소통하기란 쉽지 않죠.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책에서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 속상한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혜영의 식탁

■ 저 자	정 혜 영
■ 출 판 사	이덴슬리벨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594.5 정혜영정

책 소개

“내가 식사를 정성 들여 준비하는 이유”

배우 정혜영이 남편과 네 명의 아이들에게 차려온 요리들 중 따라 하기 쉬운 요리들을 뽑아 소개한 책입니다.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어 각 계절에 맞는 요리를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들은 아니어서 가끔 식탁에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 기분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1 독서습관

■ 저 자	유 형 선
■ 출 판 사	사우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029.8 유형선중

책 소개

“가족이 함께 읽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 책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독서를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로 독서와 멀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부부는 가족이 함께 모여 고전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이 독서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합니다. 부부는 이 책에 성장기 자녀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실제 가족의 독서토론 사례를 담았습니다.

자녀가 독서와 멀어지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이 책을 읽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요리책

■ 저 자	최 윤 건
■ 출 판 사	위즈덤하우스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594.5 최윤건할

책 소개

“할머니, 정말 고마워. 그동안 나를 보살펴 줘서.”

이 책은 최윤건 할머니가 직접 요리법을 쓰고, 손녀딸이 그림을 그린 추억이 담긴 요리책입니다.

저자인 최윤건 할머니께서는 겨울철 병판길에 넘어져 더 이상 요리를 직접 하기 힘들어져 요리법을 글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손수 쓰신 글씨와 손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아주 정겹고 인상적입니다.

유년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보낸 분들이라면 할머니와의 추억이 저절로 생각나실 텐데요, 이 책을 보신다면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이 툭 떨어질 지도 모릅니다.

문득, 할머니의 품이 그리워진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